

산업재해 유가족의 경험

- 2026년 9월 아시아 과로사 감시 연대 토론회 참가기¹⁾

장항미 회원

대만산업안전보건연대의 초청으로 집행위원장 유청희님과 함께 지난 9월11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아시아 과로사 감시 연대 토론회에 다녀왔다. 이번 토론회는 대만산업안전보건연대가 주관하여 각국의 활동가들뿐만 아니라 산재 피해 당사자인 과로사 유가족들도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기획되었다.

한국에서는 과로사 산재 유가족으로 쿠광 야간 노동자 故 장덕준님의 어머니 박미숙님과 아버지 장광님이 참석하였고, 일본은 2011년 15세 때 아버지를 과로사로 잃은 유키님이 참석하였다. 대만 유가족 제이슨님은 2021년 원양상선 실습생이었던 남동생을 과로사살로 잃었는데 개인사정으로 토론회에는 참석하지 못했으나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만날 수 있었다.

대만, 일본, 한국 과로사 유가족의 경험을 서로 나누다

1) 해운산업 관련 개선 정책 제안

대만 유가족 제이슨의 남동생은 원양상선 실습 3개월 만에 선내에서 사망하였다. 사망 전 동생은 과중한 업무, 영양 부족, 고립 상태를 호소했는데 선사는 매우 제한된 정보만을 전달하였고 유가족은 진상파악을 위해 직접 나설 수밖에 없었다. 선사는 대만 회사이지만, 선박은 파나마에 등록되어 있어 파나마 법률에 따라야 하는 복잡한 상황이었다. 유가족은 국제운수노련(ITF)를 통해 선사에 압박을 가해 협상을 이끌어내며, 선사와의 합의 끝에 비로소 동생의 유골과 유품을 대만으로 가져올 수 있었다. 제이슨님은 이 과정에서

1)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2020년 2월 대만산업안전보건연대, 일본 POSSE, 인도네시아 LIPS(2023년 12월부터 참여)와 함께 아시아 과로사 감시 연대를 조직하여 정기적으로 각국의 과로사 관련 동향을 공유하며 과로사 방지를 위한 공동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해운산업의 산적한 제도적인 문제점을 알게 되었고 이를 토대로 개인적인 아픔을 넘어 관련 기관에 개선 정책을 제안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2) 다른 과로사 유가족 지원활동 참여²⁾

일본의 유키님은 아버지의 과로사 산재 인정 후 회사의 책임을 묻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고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10년 만에 회사의 책임을 50% 인정하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이를 계기로 그는 노동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다른 과로사 유가족의 산재 신청 및 소송을 지원하는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3) 쿠팡 과로사 문제 공유

박미숙님과 장광님은 2020년 아들의 사망 이후 6년째 쿠팡을 상대로 길고 힘든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이미 2021년 과로사로 산재 인정 되었음에도 쿠팡은 여전히 과로사를 부인하며 손해배상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해 12월 쿠팡의 김범석 의장이 고인의 과로사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지시한 정황이 폭로되면서 새로운 싸움이 시작되었다. 쿠팡은 최근 대만에서 공격적인 투자로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³⁾ 박미숙님은 대만에서 똑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국 쿠팡의 과로사 문제를 대만에 꼭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국경을 초월한 연대의 필요성

대만, 일본, 한국의 과로사 문제는 서로 많이 닮아있다. 장시간 노동이 만연한 근무 환경, 일단 과로사가 발생하면 개인의 잘못으로 몰아가며 과로사를 부인하고 자료를 은폐하는 기업, 과로사 규명에 소극적인 정부 기관, 과로사를 증명하기 위해 기업과 기관을 상대로 힘겨운 싸움을 하는 유가족. 세 나라의 과로사 문제에서 동일하게 찾아볼 수 있다.

과로사는 이윤을 위해 극단적인 효율을 강요하는 사회와 기업이 만든 비인간적인 노동 환경에서 발생하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이다. 이미 쿠팡과 같은 새로운 플랫폼 기업들은 이윤 극대화를 위해 여러 국경을 넘나들며 각국의 노동권 공백을 파고들어 규제를 피해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세 나라가 함께 과로사 문제에 대항하기 위해 국경을 넘는 연대가 필요하다. 

2) 유키님의 이야기는 2025년 3월 일터 기사 '과로사 책임에서 도망친 회사'에서 소개된 적이 있다.

3) 대만 미래유통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현지 토종 1위 이커머스 모모(momo)의 점유율은 22.5%로 소폭 하락한 반면 싱가포르 기반의 이커머스 쇼피(Shopee)와 쿠팡을 합한 점유율은 27%까지 치고 올라왔다. 쿠팡 김범석 의장은 이달 초 콘퍼런스 콜에서 "대만은 현재 한국과 동일한 성장 곡선의 초기 단계에 있다"며 장기 성장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 출처 : 한국일보, 2026.8.25, 한국서 겹약재 쿠팡 ... 환경 닮은 '차기 성장 엔진' 대만에 공들인다.